

碩士學位論文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들의 비극적 갈등과 화해의 과정

指導教授 宋 一 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姜 玟 朱

2005年 8月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들의 비극적 갈등과 화해의 과정

指導教授 宋 一 商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姜 玟 朱



姜玟朱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日

審査委員長 허 운덕 

審査委員 이 중민 

審査委員 송 일상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들의 비극적 갈등과 화해의 과정

姜 玟 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宋一商

본 논문은 유진 오닐(Eugene O'Neill)의 『밤으로의 긴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를 통해 타이론가의 가족들로 구성된 주인공들이 자신의 운명적 고통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며 가족 간에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닐은 현대인의 고통과 갈등을 다양한 극작 기법을 통해 탐구하여 미국의 연극계에 큰 활력을 준 인물로 지금까지도 미국 극작가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자신을 둘러싼 운명적 힘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며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갈등을 겪는 인물들이다. 그의 작품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비극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패배라는 외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패배의 고통 속에서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현대인들은 물질과 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절망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 인간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탐구에 관심을 가지려는 의지조차 상실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닐은 인간의 존재 의미는 삶이 부과하는 무서운 고통을 절망과 체념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끝까지 견뎌내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투시하기 위해 과감히 실패에 도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의 비극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밤으로의 긴 여로』는 오닐의 눈물과 피로 쓰여진 자서전이라 할 만큼 오닐

* 이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자신의 경험과 가족 전체가 겪은 고통과 슬픔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기본 구성은 물질에 집착하는 아버지 타이론(Tyrone)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에 빠진 채 현실을 외면하는 메어리(Mary), 냉소적 성격의 제이미(Jamie), 염세적인 에드먼드(Edmund)로 구성된 가족의 시련과 갈등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오닐은 과거로부터 고통받는 가족들의 내면 심리와 가족간의 갈등 관계를 다양한 극작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격렬하게 드러내며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과 그 증오 뒤에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오닐은 인간 상호간의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소외의 문제가 현대인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 작품 속에서 그러한 이해의 결핍을 해결해주는 창은 그들 사이를 이어주는 대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갈등과 대화를 통하여 가족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며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닐은 이를 통해서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한 탐구와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끊임없이 참된 자아의 정체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목 차

I. 서론	1
II. 비극적 갈등의 요인	6
III. 비극적 갈등의 양상	
1. 현실도피	18
2. 애증의 양면성	29
IV. 극복과 화해의 과정	37
V. 결론	45
참고문헌	49
Abstract	51



I. 서론

유진 오닐(Eugene O'Neill, 1888-1953)은 20세기 미국 연극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켜 현대 미국 연극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당대 미국의 연극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오닐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기법을 미국 연극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실험 기법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미국적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끊임없이 추구했다.

극작가로서 오닐은 유럽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작가들의 작품들과 당시 시대 사상에 심취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거스트 스트린드버그(August Strindberg)의 표현주의 극작 기법,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철학,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 심리학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스트린드버그의 영향을 받은 오닐은 인간의 내면에 담긴 숨겨진 동기 등 영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모든 문제를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니체의 영향으로는 문명 비판, 기독교 비판, 초인 사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오닐 역시 니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신을 부정하려 했으며 물질주의와 맹목적인 부의 추구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과정을 여러 작품을 통해 그리고 있다. 또한 오닐의 작품에 나타난 프로이트나 융의 심리학적 근거는 그의 작품이 인간의 무의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닐의 극중 인물들이 자아 발견의 과정에서 프로이트와 융의 무의식의 세계를 이루는 요소인 증오심, 원시적인 공포, 죄의식,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되는 데서 살펴볼 수 있다.

오닐은 40여 년에 걸친 극작 기간 동안 총 62편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작품마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 극적 기법들을 선보이고 있어 그의 작품의 특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1929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오닐 자신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엿볼 수 있다.

오늘날 극작가는 그가 느끼는 대로 현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병폐의 근

원 -즉, 전통적인 신의 죽음, 그리고 과학과 물질주의가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켜줄 잔존하는 원초적인 종교적 본능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헤쳐야합니다. 내 생각에 이 시기에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작가는 그의 연극이나 소설 속의 작은 주제들 저변에 이 큰 주제를 지녀야 합니다.1)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사소한 일상의 일을 다루기 보다는 현대 사회의 병폐를 파헤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을 말하고자 했다.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인생에서 꿈, 이상, 의미를 추구하며 우주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이 파악한 현대사회는 산업,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소외당하고 종교적 신념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간들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물질주의 위에 기초한 현대 사회가 낳은 비극적 현실 속에서 소외된 자들의 비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의 극작 활동 전반에 걸쳐 그를 사로잡았던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힘인 '배후의 힘(Force behind)'의 극복을 통한 자기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 '배후의 힘'을 바라보는 오늘의 시선은 일견 결정론적이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에 도전하는 인간의 패배하는 외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패배를 통해서 파악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삶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다. 또한 비극 정신을 통해서 이러한 힘들을 정신적으로 초극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비극을 낳게 되는 '배후의 힘'은 오늘에 각기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 해양극에 있어서는 바다가 고난과 좌절, 죽음을 안겨주는 '배후의 힘'의 메타포(metaphor)로써 형상화되고 있다. 극의 무대 또한 주로 망망한 바다이거나 배 (『목마름』(Thirst), 『안개』(Fog), 『고래 기름』(Ile)), 바다와 맞닿아 있는 부둣가 술집(『먼 귀향 항해』(The Long Voyage Home), 『지평선 너머』(Beyond the Horizon)), 또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이다. 이러한 초

1) Oscar Cargill, *O'Neill and His Plays: Four Decades of Criticism*, eds., N. Bryllion Fagin, William J. Fisher (New York : New York UP, 1961), p. 115.

기 극들은 인위적인 결말이나 멜로 드라마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만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리고 있다.

오늘이 초기 극에서 자연을 불가항력적인 '배후의 힘'으로 보았다면 중기 극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인간 내면세계로 돌려놓고 있다. 중기 극에서는 물질적 성공, 종교, 사랑, 결혼, 예술 등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환경적, 개인적 한계성만을 인식하고 그 괴리 속에서 완전히 분열된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남편, 애인,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완벽한 남성을 원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기묘한 막간극』 (*Strange Interlude*), 인간의 원초적인 소유욕과 이로 인한 근친상간, 영아살해 등의 문제를 다룬 『느릅나무 밑의 욕망』 (*Desire Under the Elms*),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끝없는 날들』 (*Days without End*) 등이 있다.

오늘의 '배후의 힘'과 인간의 비극적 투쟁에 대한 변함없는 철학은 중기를 거쳐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 깊이를 더해간다. 오늘의 후기극의 주인공들은 초기 해양 극의 바다의 모티프나 중기의 과감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신화의 틀, 혹은 지나친 표현주의적 기법에서 벗어나 자기 생애의 가장 절박한 순간과 직면하고 있다. 기억 속의 과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일체의 영광으로부터 절연되어 있으며, 활동 공간 또한 축소되어 있다. 그들은 이전 극에서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된 여정의 행로를 밟지 않는다. 이전 극에서 주인공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했던 외부로의 모험 대신에 자기 내부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즉 오늘에게 있어 삶의 부조리성의 근원인 '배후의 힘'이란 초기에는 투쟁하고 극복해야 할 운명, 신 또는 현재를 낳게 한 생물학적 과거였지만 후기에 이르러서는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즉 삶 자체로 드러난다. 『얼음장수 오시네』 (*The Iceman Cometh*)의 래리(Larry), 『휴이』 (*Hughie*)의 찰리(Charlie), 그리고 『밤으로의 긴 여로』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의 에드먼드(Edmund) 등은 '배후의 힘'이란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신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정신적 성숙과 삶의 성찰로 이어지며, 삶의 실체와 화해하는 동시에 자기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오닐의 '배후의 힘'에 대한 고뇌와 인간의 내면세계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노력은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 깊이와 통찰력을 더해간다. 오닐의 전 생애를 통해 관심을 기울였던 자기 파멸의 적극적인 투쟁을 감행하는 인간의 영원한 비극에 대한 철학이 후기 극에 이르러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후기 극 중에서 뿐만 아니라 전 작품을 통틀어 가장 높이 평가되는 대표작인 『밤으로의 긴 여로』는 극작가로서의 오닐의 총체적인 모습이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다. 1912년 말 오닐이 폐결핵 진단을 받았을 때 집필한 이 작품은 그의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통해 겪은 자아 발견 과정의 고통과 슬픔이 잘 나타나 있다.

『밤으로의 긴 여로』는 총 4막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12년 8월의 어느 날 안개에 덮인 타이론(Tyrone) 가에서의 약 16시간 동안의 가족들의 생활을 통해 그들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극은 인간애, 애증의 감정이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건을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 다루고 있다. 마약 중독인 어머니 메어리(Mary Tyrone), 구두쇠 아버지 제임스(James Tyrone), 냉소적인 성격의 알콜 중독자인 형 제이미(Jamie Tyrone), 그리고 염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고 있는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작가 오닐 자신을 대변하는 에드먼드(Edmund Tyrone), 이들 가족 구성원들은 현재의 자신을 비판하고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며 대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애의 감정과 절망감은 점점 더 고조되어, 이들은 마약, 술, 안개, 그리고 과거로의 긴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어둠에 비유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작품 속에서는 하루라는 지루한 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닐은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고통받는 타이론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타이론가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활 이상으로 확대되어 인간들의 보편적 생활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며,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운명적 힘과 이에 맞선 타이론 가족 구성원들의 비극적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주인공들에게 비극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그들이 운명적 힘에 맞서는 태도를 현실 도피와 애증의 양면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운명적 힘을 극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해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비극적 갈등의 요인

오닐 개인의 가정사는 한 마디로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제임스 오닐(James O'Neill)의 배우라는 직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순회공연을 위해 이리 저리 떠돌아 다녔던 아버지 제임스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지 못했다. 오닐 자신도 실제로 호텔에서 태어났고 극장의 무대 뒤 연습실을 놀이터 삼아 성장했다. 안정된 가정 생활의 부재는 어머니의 약물 중독과 자식들, 특히 형의 방탕한 생활과 알코올 중독, 남편과 아버지에게 대한 미움을 가져왔고 소원한 가족 관계와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애정 부족은 오닐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이어진다. 그는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경험했으며 제멋대로 결혼한 딸과 평생 불화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닐은 가족 간의 갈등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작품 속에서 가족들이 사랑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극도의 미움과 원망, 그리고 증오를 나타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 자신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닐은 물질문명에서 생겨난 정신적 혼란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일생동안 신, 운명, 인간, 삶, 죽음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관심을 두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이며 심오한 주제들 즉, 인간의 존재와 영혼의 문제, 우주와 인간의 관계, 인간의 양면성과 억압된 본능 및 분열된 자아,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갈등을 주로 다루었다. 그는 인간의 참된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비극'이라는 것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작품 속에서 비극을 낳게 하는 힘을 '배후의 힘'(Force Behind)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닐은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일평생 삶의 배후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규명해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는데 1925년 아서 퀴(Athur Guinn)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항상 배후의 힘(Force Behind), 그러니까 운명, 신, 우리의 현재를 낳게 한 생물학적 과거 등 무어라 지칭하든 분명히 신비라 할 것과, 이 힘을 통해 자질구레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동물처럼 그저 단순한 존재로서

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야만 하는 인간의 영광스러운, 그러면서 자기 파멸적 투쟁에 담긴 인간의 유일한 영원한 비극에 대해 첨예하게 의식하고 있소²⁾

오늘은 인간의 삶에 작용하여 그 운명을 좌우하는 '배후의 힘'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가해한 힘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작업이 바로 오늘 그의 전 작품에 흐르는 일관된 관심사요, 나아가 그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형성하는 근본으로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비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비극이 비록 외면상의 물리적인 댓가, 예컨대 주인공의 죽음 같은 고통을 치르게 할지라도 삶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정신적 투쟁을 통해 인간은 그 힘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에게 비극은 세계에 대한 어두운 비관론이기 보다는 인간에게 비극적 위엄을 부여하는 고차원적인 질서 속의 낙관이다. 비극은 인간과 그의 경험 사이의 틈을 메꾸는 것으로서 고통은 통합의 원천이 되고 개인은 형이상학적 위안을 얻게 된다. 즉 외관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파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도 유쾌하게 삶이 밑바닥에 존재함을 인식함으로써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비극적 투쟁정신을 포기하고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는 현대인을 비난한다.

성공하고서 더 위대한 실패에로 자신을 밀어 넣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 중산계층들이다. 성공하고 나면 멈추고 마는 것은 그들의 타협적인 미천함을 증명한다. 그들의 꿈들은 얼마나 보잘 것 없었던가! 단순히 도달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얻도록 그리고 유지하도록 선고받아야만 한다. 그가 자신의 월계수에 만족하도록 놔 두어라. 월계수와 영웅이 함께 시들어 사라질 모리스 안락의자에 그를 정중히 앉혀라.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살고 죽을 가치가 있는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것이다. '희망 없음 속에 회

2) Frederic I. Carpenter, *Eugene O'Neill* (New Heaven, Con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1964), p. 48.

망'(hope in hopelessness)이라는 정신적인 보상을 지닌 자는 별들과 무지개 발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것이다.³⁾

오늘은 궁극적 실패를 향한 과감한 투쟁을 포기하는 현대인의 나약한 정신성의 상실에 대해 혹독히 비판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비극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탐구에 관심을 가지려는 의지조차 상실한 데에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존재의미는 삶이 부과하는 무서운 고통을 절망과 체념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끝까지 견뎌내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투시하기 위해 과감히 실패에 도전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정신에 의해 삶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그 거대한 힘을 극복할 수 있고, 이 힘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삶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투쟁”(the struggle of man to dominate life) 이야말로 “개인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것이다”(the individual life is made significant)⁴⁾

타이론 가의 비극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은 집안의 가장인 타이론이다. 모든 가족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의 인색함은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극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빈농 출신인 그는 빈곤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맹목적인 물질적 부의 축적에 매달리는 인물로 그의 인색함은 아내인 메어리의 마약 복용에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가족 구성원인 그들의 두 아들, 제이미와 에드먼드까지 비정상적 생활로 몰아간다.

메어리의 마약 중독의 발단은 그녀가 싸구려 호텔에서 에드먼드를 낳은 후 싼 값의 돌팔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진통제로 조금씩 맞기 시작한 모르핀은 조금씩 그 양을 더해가면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마약 중독의 상태가 된다. 메어리가 의사에게 보이는 강한 불신감은 진료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돌팔이 의사에게 맡긴 남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라 할 수 있다.

3) Eugene O'Neill, "Damm the Optimists," *O'Neill and His Plays: Four Decades of Criticism*, eds., Cargill, Fagin and Fisher (New York : New York UP, 1961), p. 104.

4) Raymond Williams, *Modern Tragedy* (Stanford: Stanford UP, 1955), p. 115.

당신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우리도 다 알아요. 제임스! 싸구려니까! 두둔하지 말아요! 나도 하디 선생에 대해 다 아니까. 그렇게 꺾고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는 무식한 멍청이에요!⁵⁾

아버지 타이론의 인색함이 가족과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은 결핵에 걸린 아들 에드먼드의 병원 선택 문제이다. 그는 아내 메어리와 마찬가지로 에드먼드를 1달러밖에 받지 않는 시골의사 하디(Hardy)에게 보내 치료를 받게 하자, 형 제이미는 “ 그 늙은이는 순 싸구려 돌팔이라고요!”(30)라며 하디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다. 제이미는 하디가 훌륭한 의사인 것은 그가 진료비로 1달러 밖에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인색함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한다. 타이론의 인색함을 둘러싼 제이미의 냉소와 그에 대한 타이론의 분노는 집안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에드먼드는 “아버지와 형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말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기분이 엉망이라구요.”(43)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인색함과 관련해서 타이론이 유일하게 집착을 보이는 것은 토지이다. 그가 토지에 대해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토지가 주식이나 채권보다 안전하며 늙어서 양로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이다. 타이론이 아들인 제이미와 에드먼드에 대한 믿음보다 토지가 주는 안정성을 더욱 믿고 집착하는 모습은 그가 인간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에 더욱 비중을 두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인간임을 보여준다. 한 집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가장인 타이론이 물질주의자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은 당시의 미국 사회가 물질주의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타이론의 비극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배우로서의 재능을 상실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다. 그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셰익스피어 배우 역할을 하던 1874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의 타이론은 셰익스피어를 사랑하고 연극에 대한 야망을 불태우던 젊은이였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면 돈을 못 받아도 연기를 하고 싶어할 만큼 순수한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그가 스물일곱이던 시절, 오셀로(Othello)역을 했을 때 불후의 명배우 부스

5) Eugene O'Neill,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New Haven : Yale UP, 1979), p. 76. 앞으로 이 작품의 본문 인용은 인용 뒤 괄호 안에 페이지수만 밝힘.

(Booth)가 극장 지배인에게 “ 저 젊은 친구는 나보다 오셀로 역을 더 잘하는 군!”(153)이라고 한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자랑거리이자 행복함을 갖게 하는 과거의 추억거리이다. 하지만 그는 시즌당 3만 5천에서 4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는 흥행 작품에 길들여지면서 조금씩 그의 재능을 잃기 시작한다. 카펜터 (Frederic Carpenter)의 지적대로 그는 고전 배우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대신 상업적 성공과 대중의 추종을 선택함으로써 예술에 바쳐야 할 그의 영혼을 오히려 돈에 팔아버렸던 것이다.⁶⁾ 결과적으로 배우로서의 재능 상실은 그 후 그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점점 더 토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했다.

메어리는 이 극에서 유일한 여성이자 현재 타이론 가를 둘러싼 비극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불행은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른 타이론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타이론과 메어리는 외모와 성격에서부터 상당히 다르다. 타이론이 아일랜드 농부 출신인 조상들의 영향으로 둔감하며 걸멋 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반해, 메어리는 그녀의 행동에서 보이는 예민함과 초조함, 자신의 머리 모양에 신경쓰는 등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론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강하며 소녀적 감수성이 풍부한 메어리의 허영심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인색하고 실용적이고 투박했기 때문에 메어리는 결혼 초부터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러한 타이론과 메어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름은 그들의 자동차에 대한 생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타이론은 메어리를 위한 마음에서 자신은 필요없다고 느끼는 자동차를 사 주지만 메어리는 그 중고 자동차가 부끄러울 뿐이다.

메어리 : 채트필드네가 새로 산 메르세데스를 타고 지나가는구나. 참 멋진 차야. 안 그러니? 우리 패카드 중고차와 다르지. (44)

타이론 : (감정이 상해서) 차는 당신을 위해 산 거요. 나는 저 빌어먹을 물건을 싫어한다는 거 당신도 알잖소. 나는 두발로 걸거나 전차를 타는 게 나아. ... (통렬하게) 헛돈 쓴 거야! 이렇게 낭비하다

6) Frederic Carpenter, *Eugene O'Neill* (New Haven: Twayne, 1964), p. 134.

가 늙어서 양로원에나 들어가기 십상이지! 저 차가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있었어? 차라리 창밖으로 던져버리는게 낫지.

메어리 : (초연한 차분함을 보이며) 그래요. 헛돈 쓴 거예요. 제임스. 저 중고차는 사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랬듯이 또 속아서 산 거예요. 뭘 사든지 싸구려 고물만 찾으니까. (87)

중서부 지방에서 가장 좋은 수녀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메어리는 자신의 처녀적 시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타이론에게 있어 셰익스피어의 연기를 하던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였다면 메어리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은 수녀원 학교에서 공부하며 수녀가 되거나 피아니스트가 될 꿈을 키우던 때이다. 그녀의 지금의 비극적 상황과 대비해서 그 때의 시절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미화되고 과장되어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기분 좋은 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행복했던 수녀원 학교의 생활은 타이론과의 결혼으로 끝이 나고 연극배우로서 무대 위의 그를 좋아했던 그녀는 무대 뒤의 그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하게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화려해 보이던 잘생긴 연극배우와 결혼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그의 내면이나 생활에 대한 이해 없이 결혼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의 직업인 연극배우라는 직업에 대하여 전혀 관심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천시하고 있었다.



나는 점잖은 집안에서 자라났고, 중서부 지방에서 가장 좋은 수녀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 나는 타이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극장이란 곳에 대해 전혀 몰랐었어. 나는 무척 독실한 소녀였거든. 나는 수녀가 될 생각까지 했었지. 전혀 티끌만큼도 배우가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 (104)

메어리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꾸던 이상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메어리에게 있어 결혼은 아버지가 주었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타이론이 대신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는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다. 메어리가 반했던 타이론의 모습은 연극을 위해 연출된 모습에 불과했음을 그녀는 곧 깨닫게 된다. 메어리는 “하지만 이건 고백해야겠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신

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줄 알았다면 절대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115)라며 타이론을 원망한다.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이론의 걸모습에만 반해 결혼했던 메어리는 곧 공연 때문에 자주 옮겨야 하는 호텔 생활과 극장 일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운 생활에 지쳐가기 시작한다.

그 지저분한 호텔 방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오고 있겠거니 하면서요. 극장 일 때문에 못 오는 거라고 자신을 달랬죠. 난 극장에 대해서 너무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더럭 겁이 났어요.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당신에게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와서 문밖에 두고 간 거예요. (조그맣게 슬픈 한숨을 쉬며) 그땐 잘 몰랐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질지. 지저분한 호텔 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기다려야 할지. 나중에 아주 이골이 나더군요. (115)

그녀의 정신적 방황의 원인은 일정한 집이 없이 남편의 공연을 따라 호텔을 전전하던 때부터 시작된다. 집을 사는 것조차 돈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타이론에 비해 메어리는 안정된 집을 기반으로 이상적 가정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은 생활의 안식처이자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을 쉬게 해주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타이론 가족에게 집이 없음은 그들 모두가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항상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싸구려 호텔방이거나 여름 휴양처로 사용하는 낡고 초라한 별장일 뿐 메어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지 못한다. 메어리는 이 여름 별장에 대해서 집을 제대로 꾸미는 데 돈을 쓴 적이 없다며 순 싸구려로 지은 집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메어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여름 별장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의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제이미와 에드먼드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도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메어리는 진정한 집을 구해주지 않는 남편 타이론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친구들과 유희를 즐기는 그를 비난한다. 진정한 집에서는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은 그러한 진정한 집인 아버지의 집을 결혼으로 인해 포기했다고 말한다.

아니, 아네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보, 여긴 가정집이었던 적이 없어요. 당신은 늘 클럽이나 술집을 더 좋아했죠. 그리고 나한테는 여긴 하룻밤 묵는 저저분한 호텔 방처럼 늘 쓸쓸했어요. 진짜 집에서는 쓸쓸할 수가 없는 법이죠. 나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난 가정을 포기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 (74)

여기서 메어리는 집이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었으며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아버지의 집을 타이론과의 결혼으로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던 과거의 추억은 메어리에게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이다. 이로 인해 갈등은 유발되고 메어리에게 진정한 집을 주지 않는 타이론과의 싸움은 점점 그녀를 방황하게 만들고 과거에의 환상으로 젖어들게 한다. 물질주의에 집착하는 타이론에 의해 진정한 집을 갖지 못한 메어리는 인생 전반에 대한 비탄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가족 전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메어리에게 있어 집은 사랑이며 과거의 행복으로 묘사될 수 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그녀는 현실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복했던 과거를 현실화하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메어리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현실의 세계를 잊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게 된다. 요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마약을 복용할지 모르는 메어리의 존재는 타이론 가 남자들의 가장 큰 불안이자 걱정거리이다. 메어리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므로써 타이론 가의 남자들은 괴로워한다. 그들은 메어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는 기척 소리 하나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혹시 그녀가 마약 복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떠다. 극의 초반에서는 메어리가 요양원에서 돌아온 뒤 타이론 가의 남자들은 그녀가 이제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을 것

이라는 희망에 행복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메어리가 마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그 의심과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자 분노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돌아와 사랑스런 예전 모습을 되찾은 걸 보고 있으면 어찌나 행복한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소. (그는 충동적으로 아내에게 몸을 기울려 뺨에 입을 맞춘다. 그런 다음 바로 앉으며 부자연스럽게 덧붙였다.) 그러니 계속 노력해 줘요. (17)

.....
당신을 믿은 내가 천하의 멍청이었다는 거 알아! (메어리에게 물러나 술을 한 잔 가득 따른다.) (71)

특히 제이미는 어머니가 마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장 시달리는 인물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불안해한다. 그는 어머니가 마약을 복용하던 이층의 빈방에 들어가기 시작한 후 그녀가 다시 마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자신이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자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여기에서 타이론으로부터 기인한 메어리의 비극이 그들의 두 아들 제이미와 에드먼드에게 또 다른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타이론의 인색함은 메어리의 마약 복용에 영향을 미치고 메어리가 마약에 의한 환상의 세계로 도피함에 따라 그녀의 두 아들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

제이미의 냉소적인 성격은 어머니가 마약을 주입하는 장면을 처음 목격한 이후부터 엿보인다. 창녀들만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제이미에게 어머니의 마약 복용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난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어머니 일을 알고 있었어. 처음 알게 되었던 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주사 놓는 현장을 봤거든. 빌어먹을. 창녀들 빼고 여자가 마약 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사이를 두고) 거기다 너까지 결핵에 걸린 거야. (166)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강한 만큼 제이미는 메어리를 증오한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상실함으로써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타이론이 과거 자신의 연기를 칭찬해주었던 명배우에게서 위안을 얻고 메어리가 자신의 처녀 시절의 환상 속에서 도피처를 구했다면 제이미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메어리는 제이미의 냉소주의적 태도를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기에게 밀착되어 있는 이 아들이 자기가 마약을 복용했는지의 여부를 알게 될까봐 그를 피하려 한다. 또 무엇보다도 제이미는 메어리에게 죄의식과 불행감을 준 어린 아들 유진의 죽음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밖에 없다. 순회공연 중이던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떠났을 때 흥역을 앓고 있던 큰 아들 제이미가 한 살 반 밖에 되지 않은 유진의 방에 들어가 전염시켜 아기가 죽게 된 것이다. 메어리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제이미가 고의로 그 방에 들어가 병을 옮겨 주었다고 믿고 있다. 결국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게 된 것은 에드먼드의 출생 때문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유진의 죽음을 야기시킨 제이미의 질투심이다. 따라서 어머니 메어리는 아들 제이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제이미는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아기한테 샘을 내고 있었으니까. 아기를 미워했으니까. (타이론이 반박하려고 하자) 알아요. 그때 제이미 나이가 겨우 일곱 살이었다는 거. 하지만 그 앤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아기한테 흥역이 옮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시켰으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 일이 있는 후로 난 제이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90)

이러한 메어리의 증오와 마약 복용은 제이미를 술과 창녀와의 환락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메어리가 마약을 다시 복용하게 되자 제이미의 절망과 좌절감은 극도에 이르고 그의 반응도 신랄해 진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마약에 취해 나타나자 “미친 장면. 오펜리아 등장!”(174)라고 비웃는 것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메어리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의 극치이다. 그가 시내의 술집에서 매력 없이 똥똥하지만 어머니와 비슷한 창녀 바이올렛(Violet)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어

머니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일종의 도착된 애정 심리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형인 제이미의 비극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에드먼드의 불행은 선천적으로 그의 출생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메어리는 에드먼드의 출생이 그녀에게 유진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식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낳지 말아야 했었다는 고백을 한다. 에드먼드의 출생은 그녀에게 산고의 고통 후 나타난 병을 고치기 위해 시작된 모르핀 투여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부여받은 결과가 되고 있다.

에드먼드 또한 형 제이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인색함에 대해 분노하고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괴로워하며 방황한다.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타이론이 결핵에 걸린 자신을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주립 요양소에 보내려 하는 데에 대해 에드먼드는 “이 지독한 노랭이 영감……!”(148)이라며 분노한다. 어머니를 닮아 예민하고 감성적인 에드먼드에게 있어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며 병에 걸린 아들을 주립 요양소에 보내려 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부끄럽고 자존심 없는 행동으로 비춰진 것이다. 그리고 마약 복용으로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 또한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제일 참기 힘든 건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짙은 안개 속에 숨어 그곳에서 헤맨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고의적으로요. 그게 사람을 죽이죠! 고의적으로 그런다는 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우리한테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걸 잊으려는 거죠!
(142)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의 생활을 통해 『밤으로의 긴 여로』의 네 주인공들의 심리적 여행은 이 가족의 현재의 비극을 둘러싼 과거의 무엇을 찾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면서 또 고통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 타이론의 물질에 대한 집착과 배우로서의 꿈의 좌절, 메어리의 좌절된 감성적 욕구와 마약 복용, 제이미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증오로 인한 냉소주

의, 출생의 비극에서 시작된 에드먼드의 염세주의와 방황, 이러한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현재 타이론가의 비극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운명적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Ⅲ. 비극적 갈등의 양상

1. 현실 도피

타이론 가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 현재의 삶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연속선상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삶에 좌절된 인간에게 있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절망과 체념,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타이론 가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인생은 "괴물 고르곤(Gorgon) 셋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133)과 같다는 에드먼드의 말처럼 그들은 현실을 바로 보기를 두려워한다. 괴물의 얼굴을 보면 들로 변해버리듯이 그들에게 있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괴롭고 무의미한 세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현실을 도피한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밤으로의 긴 여로』의 네 인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는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들은 집에 모이면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한 장소에 모여 있기를 두려워하며 집 밖으로 나갈 구실을 찾는다. 또한 실제의 심각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의 상태를 직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가장인 타이론은 자신의 가족들을 둘러싼 비극의 모습을 알면서도 사실을 부정한다. 자신의 인색함이 불러일으킨 결과들에 대한 추궁이 있을 때마다 그의 태도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애써 부정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그는 항상 아들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 식당에서 제이미와 에드먼드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들들이 자신의 흉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쾌해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인색함이 에드먼드의 병을 방치했음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내 부정하고 그 책임을 원래 병약한 에드먼드 자신에게로, 또 더 나아가서는 에드먼드에게 술과 방탕한 생활을 가르친 형 제이미에게 전가시킨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전문의를 붙인들 무슨 소용이나? 대학에서 쫓겨난 뒤로 엉망으로 살면서 일부러 몸을 망친 녀석인데. 그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네 흉내를 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 너처럼 몸이 튼튼하지도 못하면서 말야. 너야 나 닮아서 체격도 좋고 건강하지만 - 지금은 몰라도 그 나이 땐 그랬어 - 갠 어미를 닮아 신경질적이고 약하잖니. 그러면 몸이 못 배긴다고 그렇게 타일렀건만 내말은 컷등으로 듣거니 이제 너무 늦었어. (34)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신의 배우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가난에 찌들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인색하고 완고한 노인이 되어버린 타이론은 자신의 인색함에 대한 가족들의 냉소와 비난, 마약 중독이 된 아내로부터 도피하여 술에 의존한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물질적 성공과 맞바꿔 버린 댓가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고통받고 있는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술과 그의 미래를 약속해 준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몰두함으로써 괴로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타이론 가족 중에서 현실 도피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인물은 마약의 영향을 받은 메어리다. 메어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나가기보다는 수줍어하고 내성적이라 주어진 현실 상황에 수동적으로 안주하려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녀의 성격으로 인하여 메어리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행복했던 과거 시절의 회상에 탐닉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좌절된 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녀가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매우 괴롭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극이 시작할 때 그녀는 몇 달 동안 마약 중독에서 성공적으로 해방될 수 있었지만 에드먼드의 결핵이 그녀를 매우 상심하게 하여 다시 마약중세가 재발하게 된다. 그녀는 이 아들의 병이 결핵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어린 아들 유진의 죽음에서 야기된 죄의식과 함께 에드먼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이건 그냥 감기야!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어!”(16) 라며 애써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핵에 감염된 바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병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당시의 결

핵은 목숨을 가져가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떠다. 수녀원 여학생 시절의 수줍음과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를 원하는 메어리에게 현재의 절망적 상황들은 그녀를 현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녀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찾듯, 허구의 환상에 매달린다. 그녀에게 있어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순수에의 열망과 허영심을 채워주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지막 선물이자 행복했던 과거의 상징물이다. 메어리의 행복했던 시절은 결혼하기 전이었으며 그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바로 웨딩드레스이기 때문이다. 결혼 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은 그녀의 진료비조차 아까워하는 인색한 사람이었기에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이상과 욕망의 실현과 좌절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메어리는 웨딩드레스를 보면 행복했던 과거가 생각나 기쁘기도 하지만 곧 그때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 생각나 괴로워하기도 한다.

우리 결혼식 기억나요, 여보? 당신은 내 웨딩드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맣게 잊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한테 중요했어요! 그때 얼마나 범벅을 떨고 걱정을 했었는지! 너무 들뜨고 행복했었죠! 아버진 돈 걱정은 말고 원하는 걸로 사라고 하셨죠. 최고의 드레스도 나한테 과분하지 않다면서요. (116)

.....
아, 그 드레스가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이지 너무도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지? 쓸쓸할 때면 가끔 꺼내서 보곤 했었는데. 하지만 드레스만 보면 눈물이 나서 오래전에.....
(117)

처음 등장할 때 웃음을 띠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그녀는 극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들과의 대화로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런 현재를 만들어낸 과거와 마주쳐야 한다. 에드먼드를 낳을 때의 산고, 돌팔이 의사의 무책임성, 남편의 직업과 인

색함으로 시설이 좋지 못한 호텔을 전전해야 했던 일 모두는 그녀의 고통스런 현재를 만들어낸 과거이다. 이러한 과거의 힘에 눌려 무력하기만 한 메어리는 가족과 같이 있으면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마약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받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층의 빈방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칩거하며 고통스런 과거를 잊어보려 노력한다.

그러나 에드먼드의 병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외로움으로 다시 마약을 복용하게 되고 자신만의 행복했던 과거로 도피하여 고독하고 고통스런 현재를 잊으려 한다. 그녀는 자신이 마약을 복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약을 쓰면 통증이 가시니까. 통증이 미치지 않는 과거로 떠나는 거지. 행복했던 과거만이 있는 곳으로.”(107)라고 고백한다. 마약으로 창조되는 환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이루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한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 맞추어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미화하고 과장시킨다. 타이론과의 결혼에서 비롯된 그녀의 불행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그를 알기 이전의 세계, 순진한 처녀로 부족함 없이 지내던 그 시절로 도피하는 일이다. 과거 어린 시절에 규율을 가르치는 수녀원에 보내졌던 메어리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 순진한 그녀가 수녀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녀들의 종교적인 엄격한 신앙 생활 뿐이었다. 여기서 메어리는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수녀가 되겠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그녀는 너무나 순수하고 천진무구한 어린 아이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안주하는 수동적인 삶을 산 것이다. 그녀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녀원 학교 시절 원장 수녀님과 음악 선생님들의 칭찬과 유럽으로의 유학 생활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내린 막연한 꿈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 보다는 무대에 선 타이론의 화려한 모습에 반해 그와 결혼하게 된다. 자신을 보살펴 주고 아껴주는 인물이 아버지에게서 타이론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거의 기억이 행복할 수 없었으므로 메어리는 선택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하여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보이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회귀하고 싶은 순간에는 당시의 해

맑은 소녀의 표정으로 변화하며 행복해한다. 또한 그녀가 기억하는 과거는 그녀 자신의 환상에 따라 과장되고 미화된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회상함에 있어 남편과의 이야기에서는 그의 스캔들로 인해 겪은 괴로움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있지만 하녀 캐슬린(Cathleen)과의 대화에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해왔으며 남편이 한번도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수녀원 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좋은 집에 사는 친구들. 그 친구들 집에 놀러도 가고 우리 집에 초대도 했었죠. 하지만 배우와 결혼을 하니까 - 그 당시엔 배우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 그 뒤로 많은 친구들이 등을 돌리더군요. 그리고 바로 당신의 정부였던 여자가 당신을 고소했다는 스캔들이 났죠. 그러자 어떤 친구들은 나를 동정하고 어떤 친구들은 안면을 바꾸더군요. 차라리 안면을 바꾸는 쪽이 동정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덜 미웠어요. (88)

.....
삼십육 년이나 지났는데도 오늘 일처럼 또렷이 기억나! 그 뒤로 우린 서로 사랑해 왔지. 그리고 그 삼십육 년 내내 그이는 스캔들 비슷한 것도 일으키지 않았어. 다른 여자하고 말이야. 날 만난 뒤로는 캐슬린, 그래서 난 정말 행복했단다. 그 덕에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었지. (108)

그녀의 고통스러운 현재의 상태와 대비하여 과거의 기억은 과장되고 미화되어 새로운 환상의 세계를 창조하게 되고 그 속에서 메어리는 현실과 벽을 쌓은 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마약이며 메어리는 마약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과거로의 도피의 시간은 메어리가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과거의 환상으로 빠져들게 하여 주체가 완전히 분열되고 감정이 악화되는 상태이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타이론 가의 가족은 모두가 걱정하고 있으나 메어리는 이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녀는 에드먼드에게 “그러잖아도 힘겨운데 이렇게 밤낮 감시하고 뭘 캐내려고 하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니? 사람을 믿어줘

야 말이지.”(47)라고 불평한다. 메어리가 이층의 빈방에서 몰래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이층방으로 가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이론 가의 남자들은 메어리의 행동에 계속 관심을 갖고 특히 이층방에 혼자 남겨지는 것에 더 신경을 곤두세운다. 메어리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화제와 관심은 항상 메어리의 이층방에서의 행동에 모아진다. 그녀가 이층방으로 사라지고 난 뒤 제이미가 “또 팔에 주사 한대 맞겠군!”(78)이라며 비웃는 데에서 이층방에서의 메어리의 거동과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현실 도피에 빠져 일시적 환상의 세계인 과거에 머물고 싶어하는 메어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개’의 이미지이다. 그녀는 현실의 고통이 안개로 가리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안개는 고통적인 현실을 흐리게 하여 그녀의 환상적인 꿈을 더욱 자극하는 마취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안개는 현실의 세계로부터 벽을 쌓고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해 있는 그녀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메어리는 그녀의 도피처인 안개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담을 쌓은 채 행복했던 과거에서 살고 싶어한다.

안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가려주고 세상을 우리로부터 가려주지. 그래서 안개가 끼면 모든 게 변한 것 같고 예전 그대로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찾아내거나 손을 대지 못하지.
(100)

특히 안개는 극의 진행속도에 따라 농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그들의 고뇌의 현상과 깊이 연루되어 나타난다. 극이 시작할 때 맑은 상태였던 날씨는 저녁으로 갈수록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밤이 되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해진다. 오닐은 다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소외감의 전조로서 또는 현실도피라는 신비감의 객관화로써 안개의 부정적 효과를 초기 작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다. 『카디프를 향해 동쪽으로』(*Bound East for Cardiff*)에서 바다에 깔린 안개 때문에 침울해진 양크(Yank)가 심경을 토로하며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의 죽음 뒤에 걷히는 안개로부터 우리는 무지의 운명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오닐에게 안개는 외부의 힘으로서 인간에게 비극을 안겨주는 운명적 힘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안개는 고립과 환상, 그리고 애증의 이미지를 띠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각각의 인물들의 상황에 따라 설정된다. 특히 메어리에게 있어 안개는 마약 투여의 욕구를 상승시켜 과거의 환상에 젖어들게 하는 심리적 운명체라 할 수 있다.

안개가 그녀에게 가혹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라면 안개고동과 그녀의 손은 현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메어리는 안개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살다가 안개고동 소리에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다. 안개고동 소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메어리에게 현실을 상기시키는 소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언제나 그녀는 안개고동 소리를 두려워한다. 계속 환상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메어리에게 안개고동 소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소리이므로 불안해하며 안개고동 소리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녀는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마약에 의한 환상이 이 아픈 현실을 둔화시키는 필요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안개 속과 같은 몽롱한 의식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몽환을 불러오는 마약과의 싸움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 메어리의 이러한 실패는 아픈 현실을 일깨우는 안개고동 소리를 대할 때 마다 고통이 가중된다. 그녀는 “고동 소린 정말 지긋지긋해, 혼자 있게 놔두질 않는단 말이야. 꼭 뭔가를 회상시키거나 환기시키거나 옛날로 돌아가게 하거든”(101)이라며 안개고동 소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다. 안개는 메어리에게 과거의 환상 속으로 젖어들게 하지만 안개 고동은 그때 마다 그녀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안개 고동과 함께 그녀로 하여금 가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류마티즘에 고통받는 그녀의 손이다. 메어리는 유독 손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 그것은 그녀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는 지시문에 잘 드러나 있다.

단번에 눈길을 끄는 건 극도로 초조해하는 그녀의 태도다. 그녀는 잠시도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손가락이 길어 끝으로 갈수록 가는 것이 한때는 아름다운 손이었겠지만, 관절염으로 마디가 울퉁불퉁해지고 손가락이 뒤틀

려서 이제는 흉하고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손에 예민한 데다 그로 인한 초조감을 감추지 못해 오히려 더 시선을 끌게 된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걸 의식하고 더욱 그 손에서 눈길을 돌리게 된다. (12)

메어리가 손에 대해 유달리 집착을 하고 자신이 변해버린 손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은 그녀의 처녀 시절 꿈과 관련이 있다. 수녀원 학교를 다닐 당시 그녀의 꿈은 수녀가 되거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꿈은 현재의 비참함과 대비해 더욱 미화되어 그녀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왔고 과거의 환상 속에서 행복해하지만 류마티즘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손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금 현실로 되돌아와 버린다. 그녀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피할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변해버린 그녀의 손은 안개 고동 소리보다 더 잔인하게 옛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혐오감에 낯을 잃고 손을 바라보며) 봐, 캐슬린. 얼마나 흉한지! 완전히 병신 손이 됐어. 누가 보면 끔찍한 사고라도 당한 줄 알거야! (야릇한 웃음 소리를 내며) 사고라면 사고지. (갑자기 등 뒤로 손을 감춘다) 보지 말아야지. 안개 고동 소리보다 이 손이 더 옛날 기억을……. (106)

이 극에서 메어리 만큼이나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물은 제이미이다. 장남 제이미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머리가 명석해서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을 만큼 성실한 소년이었으나 지금은 술과 여자로 젊음을 탕진하고 있는 철저한 냉소주의자로 변해버렸다. 메어리는 제이미가 타락하게 된 것은 집다운 집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고 어렸을 때 위스키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던 타이론의 인색함 때문이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강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제이미는 유진의 죽음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말없는 비난을 받아야했고 급기야는 그녀의 마약 중독으로 모든 믿음과 신앙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는 늘 취해 있거나 취하여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물이며,

취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 대단히 냉소적이다.

참, 제가 그걸 몰라요? 인정이 없다고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버지 이상으로요! 제가 그런 말을 한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견뎌내야만 할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 뿐이라고요. (비통하게) 치료 효과는 잠깐이었어요. 사실 치료도 안 되는 건데 우린 등신같이 희망을……. (냉소적으로) 이제 다 글렀어요! (78)

제이미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으나 그녀가 쌓아올린 벽 때문에 그는 사랑을 얻지 못하고 어머니가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애착심이 강한 만큼 그녀의 마약 복용에 따른 실망감과 증오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에게 어머니의 파멸은 곧 그의 파멸이요, 어머니의 재생은 곧 그의 재생이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직은 너무 실망이 커서. 이번엔 희망을 갖기 시작했거든. 어머니가 이겨내시면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끔찍한 건, 취기로 인한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맹정신으로 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166)

제이미에게는 타이론이 간직하고 있는 배우로서의 자부심, 메어리의 행복했던 소녀 시절의 꿈과 같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 줄 행복했던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이 또한 그녀의 마약 복용으로 좌절되고 만다. 따라서 그는 더욱 냉소적이 되어가고 술과 여자에 탐닉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어린 나이부터 제이미의 영향을 받아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 에드먼드 역시 부모의 과거와 자신의 출생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으로 고통받는 인물이다. 타이론 가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고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메어리의

마약 중독은 근본적으로 그의 출생에 기인한다. 어머니를 마약 중독에 빠지게 했다는 죄의식과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다는 소외감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것이 그의 전 생애를 어둡게 만든다. 그는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살을 시도하였고 험난한 선원 생활을 자처하는 등 방황의 시기를 보낸다. 어머니의 마약 복용이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에드먼드의 자학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삶 자체를 증오한다.

전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갈매기나 물고기였다라면 훨씬 좋을 거예요. 인간이 되는 바람에 항상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진정으로 누구를 원하지도, 누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어디 속하기도 못 하고, 늘 조금은 죽음을 사랑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157)

에드먼드에게 죽음은 간절한 염원으로 느껴지며 여기에는 우주 속에서 부조리하며 무의미한 인간 존재의 의식과 그 의식에 따른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내포되어 있다. 과거의 방랑 생활과 모험이 병과 함께 저주받은 망령이 되어 현재의 염세주의적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었던 결핵과의 투병은 그를 허무주의자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를 인용하여 깊은 허무로 인한 자기 부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시간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술과 안개 그리고 자기 부정의 세계로 몰입한다.

언제나 취하라. 그 밖의 일은 상관할 바가 아니리라. 그것이 문체이다. 그대 어깨를 짓누르는 속세의 무거운 짐과 그대를 대지 위에 마구 뒤눕히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쉬지 말고 취하라. 무엇으로 취하는가? 술과 시와 덕, 그 어느 것에건 취하면 되느니라. (135)

.....
전 안개 속에 있고 싶었어요. 정원을 반만 내려가도 이 집은 보이지 않죠. 여기에 집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이 동네 다른 집들도요. 지척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들렸어요. 그대로인 건 아무

것도 없었어요.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죠. 진실은 진실이 아니고 인생은 스스로에게서 숨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세상에 저 홀로 있는 거예요. 저 항구 너머. 해변을 따라 길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땅 위에 있는 느낌조차도 없어졌어요. 안개와 바다가 마치 하나인 것 같았죠. 그래서 바다 밑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오래전에 익사한 것처럼. 전 안개의 일부가 된 유령이고 안개는 바다의 유령인 것처럼. 유령 속의 유령이 되어 있으니 끝내주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133)

에드먼드의 비현실 세계의 상징은 모든 사물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진실이 진실하지 못하며 삶이 숨어버리는 안개이다. 안개 속에서 그는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듯하고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오래전에 익사한 것처럼 느낀다. 그는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 모호한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길을 잃은 현실 도피자가 된다.

『밤으로의 긴 여로』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운명적 힘에 고통받고 좌절하며 때로는 마약이나 술의 힘을 빌려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 제목에서의 '여로 (journey)'는 바로 이들이 하게 되는 과거로의 후퇴를 의미하며 브루스틴 (Robert Brustein)은 "긴 여로란 과거로의 여행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한다.⁷⁾ 가족 구성원들은 때려야 떨 수 없는 굴레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책임 회피만을 보여주며 모두가 서로로부터 이탈하려 한다. 그러나 타이론 가족들은 가족 불행에 대해 서로간의 책임 회피가 아닌 서로 간의 교섭을 시도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운명적 힘에 맞서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마주서서 고뇌할 때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7) Robert Sanford Brustein, *The Theater of Revolt: An Approach to the modern Dram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4), p. 353.

2. 애증의 양면성

타이론가의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비극 앞에서 서로에 대한 강한 애정과 증오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애정과 증오의 강렬한 이중적 태도는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켜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복되어 나타나 서로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첫 번째로 애정과 증오의 교환은 에드먼드의 병과 의사 하디와의 관계에 대하여 아버지 타이론과 장남 제이미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이미는 에드먼드가 처음 아팠을 때 제대로 된 의사에게 보냈다면 쉽게 병을 고쳤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인색한 태도를 비난한다. 반면 주급이 나오면 창녀와 술에 돈을 탕진하는 제이미에게 아버지는 1달러의 가치도 모른다고 아들을 꾸짖는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말다툼에 다소 수그러들면서 타이론은 장남 제이미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과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을 드러낸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누가 너한테 배역을 줬겠니? 평판이 그렇게 나쁜데. 이 아버지가 어쨌든 줄 알아? 아들놈이 새 사람이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존심을 굽히고 구걸을 했어! (32)

.....
(이제 분개해서 호소한다.) 그 머리에 어리석은 생각 대신 야망이 들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너 아직 젊어. 이름을 낼 기회는 아직도 있어. 너 훌륭한 배우가 될 소질이 있었어! 아직도 있고. 너 내 아들이고……! (33)

타이론은 사실 제이미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고 그가 자신이 젊은 시절 못 이룬 꿈인 배우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제이미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술집에서 빈둥거리며 돈이나 축내는 방탕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색함을 비웃는 냉소주의자가 되었다. 그들의 다툼은 항상 서로를

향한 극심한 비난과 애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타이론은 제이미가 에드먼드의 병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자 곧바로 그 책임을 제이미에게 떠넘긴다. 그는 제이미가 순진했던 어린애인 에드먼드에게 자신이 했던 못된 짓들을 가르쳐주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제이미가 감정이 폭발쳐서 자신에게 에드먼드가 얼마나 소중한 동생이며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를 호소하자 아버지는 태도를 바꾸고 이내 일부러 동생을 망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제이미를 달랜다. 따라서 제이미와 제임스의 소란스런 다툼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늘 그 다툼 속에 있다⁸⁾라는 맨하임(Michael Manheim)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이론의 애증의 양면성은 에드먼드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타이론은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아들들이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약품대신 위스키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우스꽝스럽게도 약으로 사용한 위스키의 효력은 그의 아들들을 치유할 수 없는 술주정뱅이로 만들고 만다. 이러한 타이론의 고질적인 인색함은 성인이 된 에드먼드를 치료하는 데서도 계속된다. 그러나 에드먼드의 불복종에 대한 비난을 주저하거나 아들을 걱정하는 어조에서는 부성애를 느낄 수 있다. 인색함이 뒤섞인 그의 부성애는 모순으로 느껴지며, 에드먼드 역시 아버지와의 혈연관계로부터는 사랑을, 그의 인색함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게 된다. 타이론은 에드먼드를 향하여 고집스럽게 둘째 딸이 의사에게 치료하려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려 든다. 심지어 그의 질병이 결핵으로 판명된 이후에 요양원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그의 이러한 태도는 계속된다. 타이론은 에드먼드를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주립요양소로 보내려 하고 계속되는 변명에 에드먼드는 분노를 터뜨린다.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아버지 땅 살 돈 아껴주려고 주립 요양소
같은 데 들어갈 줄 아냐고요! 이 지독한 노랭이 영감……! (148)

부성애와 고질적인 인색함이 뒤섞인 타이론의 모호성은 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자라나게 하고, 어머니 메어리는 남편을 증오했고 두 아들 제이미와 에드먼드

8) Michael Manheim, *Eugene O'Neill's New Language Kinship* (Syracuse: Syracuse UP, 1982), p. 180.

는 아버지의 완고한 인색함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가족에 대한 증오와 애정이 가장 변덕스럽고 강하게 나타나는 인물은 메어리이다. 메어리와 타이론 사이의 애정과 증오의 교류는 1막에서 3막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메어리는 타이론과의 직접 대화에서 혹은 두 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남편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메리는 에드먼드에게 “너의 아버지는 돈을 옳게 쓸 줄 모른다. … 그가 좋아하는 것은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떠들어 대는 것이다”(45)라며 남편을 비난하고 제이미에게는 “너희 아버지는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이 하찮은 여름별장을 좋아한다.”(64)라고 화를 낸다. 그러나 타이론과의 대화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88)라며 남편을 이해한다.

특히 메어리는 마약을 복용하면서 그녀의 불안해진 심리 상태만큼이나 증오와 애정 사이를 오간다. 그녀는 지금의 비극의 책임들을 모두 남편의 탓으로 돌리는가 싶다가도 초연해진 상태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양면성을 보인다. 남편에 대한 메어리의 의식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미움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모순으로 일관한다.

어머니로서 메어리는 남편 타이론 뿐 아니라 장남 제이미와도 사랑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메어리에게 있어 제이미는 고의로 자신의 흥역을 동생인 유진에게 옮겨 죽게 한 증오의 대상인 동시에 문학과 연극 그리고 스포츠까지 다방면에 소질을 보이며 촉망받던 학생에서 이제는 방탕아로 변해버린 수치스런 아들이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제이미는 타락하게 되었지만 메어리는 그의 성장과정에 참다운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타락을 환경 탓으로 돌린다.

제이미는 극이 시작되면서부터 과거의 불행했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녀를 항상 감시한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의 표시이다. 애정을 가지고 그녀가 마약 복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녀를 지켜보려고 한다.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는 개 방 앞에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다시 머뭇거리며) 제가 겁을 집어 먹은 건 어머니가 빈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방에서 혼자 주무시기 시작하면 항상……. (39)

제이미는 어머니가 과거에 가족의 감시를 피해 홀로 있을 때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서 그녀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어머니의 마약 복용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한 그의 애정 어린 노력은 계속된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제이미의 뜨거운 애정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녀는 제이미의 냉소를 증오하고 마약 사실을 발각될까봐 그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제이미의 시선은 그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녀는 그 시선이 불안하고 불쾌할 뿐이다. 그녀는 제이미가 탐색하는 듯한 불안한 눈길로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느끼자 “왜 그렇게 보는 거니, 제이미? (초조하게 머리로 손을 올리며) 내 머리칼이 내려왔니? 이제 머리를 제대로 만지기가 힘들어.” (20)라며 불안해 한다. 또한 제이미가 어머니의 마약 복용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제이미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메어리 : (긴장해서) 왜 그렇게 보니?

제이미 : 아시잖아요. (다시 창으로 눈을 돌린다.)

메어리 : 몰라.

제이미 : 아니, 지금 절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장님이 아니에요.

메어리 : (고집스럽게 철저히 부인하는 표정이 되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구나. (65~66)

제이미는 자신의 애정 어린 관심이 거부당하고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바랐으나 그녀가 다시 마약 복용을 시작함으로써 해서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진다.

기분이 아주 우울했거든. 이번엔 어머니가 극복해냈다고 믿었어. 그런데 한방 맞은 기분이야. 난 항상 제일 나쁜 것을 믿는 인간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시지만, 이번만큼은 제일 좋은 일을 믿고 있었어.

(목소리가 떨린다.) 그러니까,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기분이 안 돼.
나한테는 중대한 일이었거든. (166)

어머니 메어리에 대한 제이미의 증오와 애정의 모순 현상은 그의 무의식적인 심리상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술에 취해 그가 내뱉은 “마약환자는 어디 있지?”(166)라는 그의 말은 잔인하면서도 증오로 가득한 냉소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가리켜 “빌어먹을, 창녀들 빼고 여자가 마약하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166)라고 증오하면서 동시에 시내 매춘가에서 매춘부 바이올렛을 만나 그녀에게서 사랑을 갈구한다. 그가 매춘부에게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티우자넨(Timo Tiusanen)은 “이것은 어머니 메어리에 대한 기괴한 복수다”⁹⁾라고 하고 있다. 메어리가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를 꿈꾸다가 지금은 관절염으로 손이 망가져버린 것과 바이올렛이 매춘가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아노를 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술독에 빠져서 그것마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제이미가 바이올렛과 메어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이미가 바이올렛을 데리고 간 이층은 어머니 메어리가 마약이 필요할 때 찾는 여름별장의 이층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제이미가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한 심정으로 찾은 바이올렛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찾으려는 이중적인 심리를 읽을 수 있다.

메어리에게 있어 에드먼드는 자신의 마약 복용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망스러운 존재이자 결핵이라는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아들이다. 에드먼드는 출생에서부터 숙명적으로 비극적 삶을 안고서 태어났다. 타이론은 아들 유진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메어리를 위로하기 위해 메어리에게 새 아기를 갖도록 권유한다. 몸이 허약해진 메어리는 처음에는 에드먼드의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 에드먼드를 낳는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산후병으로 무척 고생한다. 결국 메어리는 제임스의 인색함으로 인해 돌팔이 의사를 만나 처음으로 마약에 접함으로써 숙명적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 작자는 의도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자기한테 매달

9) Timo Tisanen, *O'Neill's Scenic Images* (Princeton: Princeton UP, 1968), p. 299.

려 애원하게 한다고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음에 그 약을 줬던 -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알았을 땐 이미 때가 늦은 다음이었죠 - 아무튼 그때 그 싸구려 들팔이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76)

또한 그녀는 루머티스에 걸려 과거의 아름다웠던 몸매를 망치게 되는 괴로움을 겪는다. 메어리는 어머니로서 에드먼드를 사랑하기는 하나 자신의 불행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 사랑과 미움의 이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에드먼드를 가진 내내 두려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진을 두고 떠난 걸로 난 다시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는 여자란 걸 증명한 셈이니 다시 아이를 가지면 천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에드먼드를 낳지 말아야 했어요.

.....
말도 안 돼요! 난 그 애를 원했어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당신은 몰라요! 그 애가 불쌍해서 한 소리였다고요. 그 앤 단 한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건강하게 살지도 못할 거예요. 그 앤 너무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태어났어요. 내 잘못으로, 그 애가 저렇게 아프니까 자꾸 유진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두렵고 죄책감이..... (91)

일반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이어서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탄생은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메어리는 자식을 자신의 불행에 대한 원인으로 생각해 애증의 감정을 드러낸다. 에드먼드를 낳기 전까지는 흰머리카락도 없었던 그녀에게 에드먼드의 출생은 기쁨이기보다는 오히려 후회로 남는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에드먼드를 낳기 전에는 건강했었어요. 신경쇠약도 없었죠... 나는 내내 건강했어요. 그러나 에드먼드를 낳고는 몸이 망가졌어요. (89)

이렇게 메어리의 애증의 갈등은 남편에서 시작해 자식에게로 확산된다. 메어리는 에드먼드 이전에 출생했던 유진의 죽음이 자기에게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더 이상 다른 아기를 자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어머니가 아들에게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이었다고 후회하고 자식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메어리의 모습은 에드먼드의 눈에는 가족을 버리는 행위로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할 가족을 증오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타이론 가족의 애정과 증오가 얽힌 관계는 제이미와 에드먼드의 두 형제 사이에서도 극렬하게 나타난다. 특히 제이미가 동생 에드먼드를 대하는 태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데에 대한 질투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섞인 증오의 감정, 결핵이라는 중대한 병을 앓고 있는 것에 걱정과 애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제이미의 에드먼드에 대한 감정은 에드먼드를 낳고 난 후부터 메어리가 아팠다는 데에서 나타나는 원망과 자신보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갖추고 신문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에드먼드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동생의 병을 걱정하며 동생을 싸구려 의사에게 진료 받게 한 아버지를 비난하는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제이미는 에드먼드의 병원 문제로 끊임없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도 이내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내보이기도 한다.

그깃 촌구석 신문! 신문사에서 개에 대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주 무능한 자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아들만 아니라면……. (다시 부끄러워져서) 아니,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신문사에선 개를 좋아해요! 특별 기고를 잘 쓴다고. 개가 쓴 시하고 패러디 몇 편은 아주 훌륭하대요. (다시 인색하게) 그걸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황급히) 그렇지만 멋진 출발을 한 건 사실이죠. (36)

빅스비는(C.W.E. Bigsby)는 “애증관계란 오늘 극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는

상반성의 만남”¹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밤으로의 긴 여로』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증오와 애정의 양면성은 상호비방과 증오의 다툼을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듯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솔직하게 표출됨으로써 조금씩 이해와 화해에 대한 실마리를 열어 놓고 있다.



10) C. W. E. Bigsby. *Critical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 vol. 1. 1900-1940 (Cambridge: Cambridge UP, 1982), p. 93.

IV. 극복과 화해의 과정

타이론 가족들은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행복했던 과거나 황홀한 순간으로 도피하여 위안을 받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은 되지 못한다. 이 일시적인 도피는 다시 돌아와야 할 현재를 더욱 더 참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지만 한다. 그들이 현실을 외면한 채 각자가 자신만의 환상의 세계에 안주하기를 지속한다면 타이론가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서로로부터 소외된 채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보고 서로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작가 오닐은 이 극의 주인공보다 더 비참한 생애를 산 작가였다. 일생 동안 비극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그에게 있어 이 극은 자기극복에의 성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을 쓸 당시 그는 고통과 피로움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오닐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 자서적인 이 작품을 깊은 슬픔 속에서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타이론 가족을 위해 '눈물과 피로 쓴 글'임을 아내 켈로타에게 바친 헌사에서 밝히고 있다.

사랑하는 이여 : 나는 당신에게 눈물과 피로 오랜 슬픔을 써 내려온 이 극의 원본을 드립니다. 슬프고 부적합한 선물로 보이는 이것은 행복을 축하하는 하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의 사랑과 애정의 보답으로 드립니다. 당신의 애정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어 타이론의 네 명의 이미 고인된 가족들을 깊은 위로와 이해,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십 이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 사랑과 빛으로의 여행이었소. 나의 감사를 당신은 알 것이요. 그리고 나의 사랑도! 11)

11) Eugene O'Neill, "Dedication" to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New Haven: Yale UP, 1979), p. 7.

그가 가족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감정으로 자신의 비극을 받아들였듯이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자신과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 타임즈의 극평에서 평가했듯이 “마지막 장에 널리 퍼져 있는 동정, 이해 그리고 용서는 슬픔에 잠긴 축복과 같은 것으로 잔인한 드라마에 위대한 결말을 가져오고 있다.”¹²⁾ 라며 이 작품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극에서 마약 중독으로 온 가족을 비참하게 만드는 메어리는 타이론과의 결혼으로 야기된 문제들로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죄의식으로 몰아넣는 마약중독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편을 미워한다. 그렇지만 남편에 대해 항상 이해와 용서의 마음 또한 갖고 있다. 이렇듯 애정에 바탕을 둔 이해는 종국적으로 삶에 대한 이해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제임스! 우리 서로 사랑해 왔어요!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고! 우리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지도 말아요. 운명이 우리에게 시킨 일들은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88)

또한 그녀는 항상 아버지를 비난만 하는 아들들에게 그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이론이 술을 바깥 지하실에 놓고 자물쇠를 채우는 행동에 대해 메어리는 타이론이 인색한 행동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는 하지만 자신은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에드먼드에게 그 또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타이론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들려준다.

특히 아버지를 비난하는 제이미에게 “네 아버지에게도 허물은 있겠지.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63) 라고 타이르는 말은 한 개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다. 이러한 남편에 대한 이해로써 메어리는 마약중독이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더 나아가 그들

12) Paul W. Gannon, *Eugene O'Neill's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New York: Monarch Press, 1965), p. 14.

의 불행의 원인은 존재 자체임을 깨닫게 된다.

운명이 저렇게 만든 거지. 저 아이 탓은 아닐 거야. 사람은 운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운명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손을 써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진정한 자신을 잃고 마는 거야.
(63)

여기서 오닐은 메어리의 말을 빌려 그가 항상 다루고자 하는 ‘배후의 힘’
을 설명하고 있다. 타이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들을 지배하고 있는 운명, 즉 ‘배후의 힘’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이러한 운명
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삶 자체를 긍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색하고 권위적인 타이론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정에 무관심해 술 마시
고 늦게 귀가하여 항상 메어리를 추한 싸구려 호텔에서 외롭게 기다리게 했
던 일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메어리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마약중독
을 가져온 그의 인색함,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 등을 비난한다. 그러나
밤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가 과거와는 달리 전 가족이 비판의 표적인
인색함을 벗어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메어리를 위해서 중고차를 구입하
기도 했었고, 이날 밤엔 여느 때와 달리 술 마시러 읍에 가질 않고 일찍 귀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전에는 밤에도 독서용 전등을 제외하곤 모든 전등
을 꺼버리는 인색함을 보였지만 이날 밤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다가 어두
운 복도에서 무언가에 부딪힌 에드먼드가 현관 불을 키며 타이론의 인색함
을 비난하자 밝은 상들리에 전등을 키는 너그러운 행동을 보인다.

에드먼드 : (역시 부끄러워져서) 됐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아무일
도 아닌 것 같고, 심술부릴 자격도 없는 놈이. 좀 취한 모양
이에요. 저 빌어먹을 불, 가서 끌게요. (일어서려고 한다.)

타이론 : 아냐 , 그냥 있어라. 그냥 켜봐.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나더

니 상들리에의 전구 세 개를 켜기 시작한다. 어린애처럼 지독히도 극적인 자기 연민에 젖어) 불을 다 켜놓자! 휘황찬란하게! 까짓것! 어차피 양로원행인데 가려면 빨리 가는게 낫지!
(전구 세 개를 다 켜다.) (130)

하루가 끝나가는 어두운 밤에 에드먼드와 타이론에 의해 차례로 불이 켜진다는 의미가 단지 인색한 타이론이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빛이란 의미가 인식과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불을 켜는 행위는 곧 감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진실을 수용하는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이미도 에드먼드와의 이해의 순간에 앞서 전등을 켜면서 들어온 뒤 자신의 고백을 통해 동생과 화해를 이룩하는데, 이 점 역시 불을 켜는 것과 인물들 사이의 이해의 순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극도의 가난 때문에 자신이 수전노가 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상업성에 치우친 나머지 배우로서 예술적으로 실패했다고 고백한 뒤 전등을 끄는 아버지를 에드먼드는 아무런 편견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이론은 열 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아일랜드로 돌아가 버리면서 열 살이라는 나이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노릇을 해야만 했다. 어린 시절 뼈저린 가난과 어머니가 말씀하신 ‘일 달러의 소중함’은 인색함을 몸에 베이게 하고 모든 가치를 물질적 부에 두는 생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타이론 : 그러다 어느 추수 감사절에,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였던가, 어머니가 빨래를 해주던 미국 사람 집에서 명절이라고 1달러를 더 줬는데, 어머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돈으로 몽땅 먹을 것을 사셨지. 그때 어머니가 우리를 부둥켜안고 키스를 하시며 피곤에 지친 얼굴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 “이렇게 고마울 데가! 우리 식구가 생전 처음 배불리 먹어보겠구나!” (눈물을 닦으며) 훌륭하고 용감하고 상냥한 분이셨지. 그렇게 용감하고 훌륭한 분은 없었어.

에드먼드 : (감동해서) 그래요. 그러셨을 거예요.

타이론 : 한 가지 어머니가 겁내셨던 건 늙고 병들어서 양로원에서 죽는

거였지. (잠시 사이를 두고 - 악의에 한 농담을 한다.) 바로 그 시절에 구두쇠 버릇이 생긴 거다. 그때는 1달러가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 버릇이란 일단 몸에 배면 고치기가 힘들지. (151)

에드먼드는 아버지의 가난했던 과거 시절의 고백과 젊은 시절 배우의 꿈이 좌절된 정황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타이론과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던 에드먼드의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자신을 싸구려 주립 요양원에 보내려는 아버지에 대해 분노했지만 아버지의 어려웠던 과거 시절의 고백을 들은 후에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한다.

아버지의 고백 이후 에드먼드는 제이미와의 대화에서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감싸주며 집안을 화목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치료비가 싼 주립요양원에 보내는 데에 대해서 분노하는 제이미에게 에드먼드는 오히려 타이론을 감싸며 “아버지도 좋은 분이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보면”(160)이라며 제이미를 달랜다. 땅을 사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고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타이론의 고백에 마음을 열게 된 에드먼드 또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타이론의 인생의 정점이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던 젊은 시절이었다면 에드먼드는 자신의 인생의 정점은 선원 생활을 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범선을 탔을 때였노라고 고백한다. 달빛 아래 누워 있던 에드먼드는 무아의 경지에서 자신의 생활을 초월한 자유의 세계를 경험한다. 그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평화와 조화의 기쁨 속에서 그의 생명과 인류의 생명보다도 위대한 생명 그 자체 즉 신이 된 경험을 한다. 이것은 황홀한 해방이 된 순간이며 인간의 욕구에서 벗어난 체험이었다. 하늘과 바다 위에 채색된 꿈과 같이 조용히 퍼져 가는 새벽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비극적 고통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그는 그가 태양이 되고 뜨거운 모래가 되고 파도에 밀리면서 암석에 밀착해 있는 해초가 되는 경험을 하고 성자가 보는 지상의 행복의 환영을 본다. 이것은 작가 오닐이 탐구한 내면의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천박하고 가련하며 탐욕적인 인간의 공포와 허황된 꿈에 대한 초월의 실현인 것이다. 이 고백의 순간들은 그에게 회상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경험한 바다는 태고부터 생명이며 인간에게 무한한 신비와 더불어 꿈과 희망을 주었다. 오늘 역시 바다를 통해 육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낄 수 있었고 자연 속에 동화되어 그와 바다의 구별을 뛰어 넘는 무아 상태에서 초월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는 청년기의 방랑 생활을 하면서 우주와 바다의 신비를 터득하고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고통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였고 마침내 초월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다를 상징으로 에드먼드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타이론과 에드먼드의 고백과 화해 무드가 조성 될 무렵 뒤늦게 만취해서 들어온 제이미 또한 상들리에의 전구를 켜고 에드먼드와 마주앉아 고백의 순간을 맞는다. 제이미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던 에드먼드에 대한 질투를 숨김없이 드러내며 자시 자신의 내면에 대해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제이미가 적의를 가지고 동생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감을 느끼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동생 에드먼드가 “어머니의 애기, 아버지의 귀염둥이!”(167)인 점이며, 둘째는 어머니 메어리의 마약 중독의 원인이 에드먼드의 출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은 집안에서 허드렛일이나 도와주는 백수같은 신세인 반면 에드먼드는 신문사에 글을 쓰는 등 문학적 기질이 다분한 가족의 기대주였기 때문이다. 제이미의 고백은 에드먼드와 같이 삶의 신비성의 카타르시스를 맞보지는 못하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경솔함, 조소, 그리고 자기 경멸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다소나마 인식하게 된다. 에드먼드에 대한 원망과 질투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이미도 동생이 결핵치료를 위하여 요양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동생에 대한 질투와 원망이 연민과 사랑으로 변한다. 그는 “동생을 그로부터 구하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다”(170)라고 말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생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고 형의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동생 에드먼드의 호의로 인하여 두 형제 사이의 관계는 매우 이상적 상태로 상승하게 된다.

아버지와 형의 고백을 통해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에드먼드는 이제 새롭게 인식한 삶에 대한 통찰력으로 비로소 빛을 향

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이해, 화해의 분위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현실을 망각한 메어리의 등장은 타이론 가족의 남자들에게 다시금 고통스런 현실을 일깨워 준다.

4막에서 남자들이 고백을 할 동안 메어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대화와 뒷층에서 들리는 발소리로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에드먼드가 “그녀는 이제 과거 속을 헤매는 유령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139)라고 한 말로 그녀의 현재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과거속을 배회할 그녀를 타이론은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들었니? 네 어머니 소리구나. 자고 있기를 바랐는데.”(139) 라며 간절히 원하지만 메어리는 마침내 순진무구한 소녀같은 표정과 옷차림을 하고 등장한다.

피아노 소리가 아까 시작할 때처럼 똑 끊기더니 메어리가 문간에 나타난다. 잠옷 위에 하늘색 가운을 걸치고 맨발에 방울술이 달린 멋진 슬리퍼를 신고 있다.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창백하고, 유난히 커 보이는 눈이 검은 보석처럼 반짝인다. 섬뜩한 건 얼굴이 너무 젊어 보인다는 점이다. 세월의 주름살이 싹 다려져 없어진 듯한 모습이다. 소녀 같은 순수라는 대리석 가면을 쓴 듯한 얼굴이고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다. 흰 머리는 두 갈래로 땀아 가슴 이로 늘어뜨렸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구식 웨딩 드레스를 한 팔에 걸치고 있는데, 그럴 들고 있는 것조차 잊은 듯 아무렇게나 바닥에 질질 끌리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그녀는 문간에서 주저하며 실내를 둘러본다. (173)

메어리가 말하기 시작하자 세 명의 남자들은 침묵 속에서 얼어붙은 듯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다. 비록 그들 셋이 모두 연장자 순으로 “메어리”, “어머니!” “어머니! 여름감기가 아니에요! 전 폐병이라고요!”(176~177)라고 외치지만 과거 속으로 빠져드는 그녀를 적극적으로 제지시키지 못하고 그저 응시만 할 뿐이다. 그것은 그녀가 마약중독에 빠지게 된 모든 과거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얻은 이해, 또 그러한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사랑, 회한의 복합적인 감정 때문이다. 이렇게 응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고통 그 자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하려고

그 방을 나가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바로 여기에 이 극의 위대함이 있다. 이 극의 주인공들은 어느 누구도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비극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며 수용하기 시작한다.

아버지 타이론은 맨 먼저 몰아 상태에 빠져 잃어버린 소녀시절의 상징인 웨딩 드레스를 질질 끌고 있는 메어리에게 다가가 감정을 억누른 채, 부드럽게 웨딩드레스를 받아 마치 보호하려는 듯이 상냥하게 손에 든다. 이는 메어리의 마약복용으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며 받아들여려는 타이론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제 타이론 가족들은 각자의 고통에 얽힌 서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관계를 원망이나 증오의 감정으로만 대하지 않는다. 또한 운명이 그들에게 준 불행도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힘으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지혜를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 론

오늘은 20세기 초 미국의 물질적 풍요의 절정기와 대공황을 통한 쇠퇴기를 모두 겪었으며 그 속에서 불행한 가족사를 통해 인간 소외의 고통과 가족간의 갈등 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가족들이 사랑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극도의 미움, 원망, 증오를 느끼는 것은 작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다.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네 명의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끊임없이 증오하고 분노하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고통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구두쇠 아버지 제임스, 마약 중독인 어머니 메어리, 냉소적 성격의 알콜 중독자인 형 제이미, 염세적인 사고 방식의 에드먼드가 보여주는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타이론 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물음이다. 특히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서로에 대한 이해의 결여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타이론 가족의 비극적 갈등의 극복과 화해의 과정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타이론의 토지에 대한 집착과 인색함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타이론은 아내 메어리가 에드먼드를 낳은 후 생긴 병을 삼류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게 되고 그 후 메어리는 모르핀 중독 증세가 나타나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된다. 그의 인색함은 아들 에드먼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제이미는 에드먼드가 처음 아팠을 때 제대로 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면 지금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버지를 원망한다. 특히 작가 오늘은 타이론이 인색하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지적함으로써 가족들 각자가 자신들의 처지를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작품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남편의 인색함으로부터 비롯된 아내 메어리의 마약 중독은 현재 타이론 가를 뒤덮고 있는 검은 그림자와 같다. 메어리는 극이 진행됨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 환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메어리의 마약 복용 여부는 타이론 가 남

자들의 가장 큰 불안이자 걱정거리이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돌아온 메어리가 이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메어리가 마약을 다시 복용하고 그녀만의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며 따라 더 큰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

타이론의 인색함과 메어리의 마약 복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정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의 두 아들 제이미와 에드먼드 또한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강한 제이미는 어머니의 마약 복용에 대한 충격으로 냉소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며 아버지의 인색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게 된다. 학교마다 퇴학을 당하고 현재 별다른 직업도 없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 주급을 받으며 돈이 생길 때마다 술과 창녀를 찾는다. 이러한 제이미의 생활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생 유진을 죽게 만들었다는 어머니의 원망과 마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데서 온 충격은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사랑만큼 강한 원망과 증오를 가져온다.

형 제이미의 비극이 후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에드먼드는 선천적으로 비극을 갖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메어리는 유진의 죽음 이후 그 죄책감으로 더 이상의 자식은 낳지 말았어야 했다며 에드먼드의 출생을 후회하고 그의 출생 이후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원망한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출생을 부정한 에드먼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는 회의를 가지고 방황을 하며 세상에 대해 염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타이론 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배후의 힘'에 의하여 각자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의미없이 살아가게 된다. 원치 않았던 삶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의 자아의 상실, 가족 관계의 분열로 타이론 가족의 네 인물들은 그들의 안식처를 찾아 고통 속에서 표류한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 타이론은 자신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가족의 불행에 대해 애써 외면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메어리는 마약의 힘을 빌려 자신의 행복했던 과거로 도피하여 현실과 가족으로부터 벽을 쌓고 생활한다. 제이미는 술과 여자에 탐닉하는 방탕한 생활로 에드먼드는 자기 존재의 부정에 대한 괴로움으로 죽음과 한 발 가까운 생활을

하며 술과 문학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다.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강한 증오와 사랑의 이중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애증의 감정을 곧 감추려 하기 때문에 가족간의 대화단절이 발생하게 되며 어머니인 메어리의 마약 중독 증세의 재발은 가족의 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가족 간의 의사 소통의 부재는 타이론가의 가장 커다란 딜레마로서 각자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부족과 불신에서 비롯된 이 현상은 그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에는 단지 순간적일지라도 모든 논쟁과 비난 밑에 지속하는 요소로 서로에 대한 이해성 있는 공감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합되지 못했던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상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의 벽을 허물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환상의 벽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에 대한 이해성 있는 공감이 찾아 왔을 때 자아의 벽을 깨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환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4막에서 회한과 죄의식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으로 타이론가의 남자들은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며, 그들을 불행하게 한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받는다. 자기 자신의 참된 자아에 대한 고백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순간에 나타난 메어리의 등장은 그들을 또다시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듯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어 내고 그런 메어리의 모습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들의 몫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상의 벽을 넘어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삶 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자아 해방과 이해의 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에드먼드의 표현대로 그것은 겨우 잠시 동안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 순간이 끝나면 인간은 다시 또 비극과 싸우고 삶과의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 순간은 삶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주기는 단순히 동일한 양상을 그대로 반복하는 기계적 주기가 아니다. 즉 과거의 주기에 비해 현재의 주기는 내용적으로 향상을 이룩한 단계에서 반복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극적 힘에 구속받는 상태라 해도 이전의 주기와는 엄연히 구별되어 존재한다. 최소한 과거

의 주기를 지배하던 힘으로부터 극복이 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타 이론가의 구성원들은 마침내 미약한 존재이지만 자신들의 고통으로서의 삶 자체를 수용하여 조화할 수 있는 강대한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운명적 힘의 가혹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삶 그대로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위대한 영혼의 승리를 의미한다. 작가 오닐은 삶의 투명성보다는 삶의 격동성에서 온갖 좌절과 비애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오닐에게 있어서 비극은 삶의 의미인 동시에 희망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I. Text :

O'Neill, Eugene,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New haven: Yale UP, 1979.

II. References :

- 김경한. 『Eugene O'Neill의 비극과 자아해방의 비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우탁. 『영미희곡개론』.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
- 김희수. 『유진 오닐 극에 나타난 소외 양상과 자아 탐구』. 서울 : 한신문화사, 1992.
- 서용득. 『Eugene O'Neill의 극에 나타난 소외 양상과 자아탐구』. 서울 : 한신문화사, 1992.
- 서용득. 『 Eugene O'Neill극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신선영. 『유진오닐의 작품에 나타난 운명적 힘과 구원의 문제』.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희정.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메어리의 정신 세계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Bigsby, C. W. E. *A Critical Introduction to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 Vol. I. 1900-1940. Cambridge: Cambridge UP, 1982.
- Brustein, Robert Sanford. *The Theatre of Revolt: An Approach to the modern Drama*.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64.
- Gannon, Paul W. *Eugene O'Neill's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New York: Monarch Press, 1965.
- Cargill, Oscar. N, Bryllion Fagin and William J, Fisher, eds. *O'Neill and His Plays*

- : *Four Decades of Criticism*. New York: New York UP, 1961.
- Carpenter, Frederic I. *Eugene O'Neill*. New Haven, Con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1964.
- Carpenter, Frederic. *Eugene O'Neill*. New Haven: Twayne, 1964.
- Manheim, Michael. *Eugene O'Neill's New Language Kinship*. Syracuse : Syracuse UP, 1982.
- Sewall, Richard B. *The Vision of Tragedy*. New Haven: Yale UP, 1980.
- Tisanen, Timo. *O'Neill's Scenic Images*. Princeton: Princeton UP, 1968.
- Williams, Raymond. *Modern Tragedy*. Stanford: Stanford UP, 1955.



<Abstract>

**Tragic Conflicts and Reconciliation among Family Members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Kang, Min-ju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Il-s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how the heroes, members of the Tyrone family, recover their fatal pains in pursuit of their-identities and how they try to reconcile each of them in Eugene O'Neill's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O'Neill searched for modern people's pain and conflicts by using diverse dramatic techniques, and he has been highly regarded as a godfather of American dramatists, who injected energetic life into American drama community. The characters in his works throw themselves into ceaseless pain, and they suffer from lots of conflicts to build their identities. Therefore most of his works are included tragic factors and are called tragedy. Moreover O'Neill intended to describe major characters as not hopeless losers but those who strive to look for their own selves even in the process of the painful defeat. He viewed modern people as those who lose lots of things due to their tenacity fo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wealth. O'Neill himself once said that modern people, who lost their identities, will drive themselves into a deep despair and will not try to recover the lost ones. The biggest tragedy in modern society is that human beings have no intention to pay attention to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O'Neill believed that people's reason for being is to endure the terrible pain of life and boldly challenge it in pursuit of what life is, instead of receiving the life a desperate one and giving it up. So his tragedy might imply what's necessary and meaningful for human life.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is a biographical tragedy included the writer's own experience and his family's pain and sadness, and can be called his autobiography. There are four members in Tyrone's family: James Tyrone, a father who clings to wealth, and Mary, a drug addict and mother who blinks the fact, and Jamie, the old son who is cynical, and Edmund, the young son who is pessimistic. The tragedy portrayed how the Tyrones go through their trials and conflicts, and successfully unveiled the psychology and mutual conflicts of the family members who are wracked into their past by using different dramatic techniques. Though their hatred and grudge were unleashed upon each of them, but there are mutual pity and love behind their hatred. O'Neill thinks that a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makes modern people alienated and lonely, and so their solution for understanding is to make an open and frank and sincere conversation among members of Tyrone's family. So they come to understand and accept each of them while they have serious talk about their misunderstanding, hatred and love.

In conclusion, O'Neill put stress on how the family members get to understand each of them, accept their lives as they are, and fight against their fate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And he eventually emphasizes how they try to make their perpetual efforts for searching for the worth of human existence and rebuilding their true selves.